

	<h1>보 도 자 료</h1>	작성과	재난대응훈련과
 <b>행정안전부</b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2021년 10월 1일(금) 조간</b>  <b>(9. 30. 12:00 이후)부터</b>         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이범준 사무관 오은주
		연락처	044-205-5291 044-205-5294

---

## 재난에 강한 나라로 한걸음 더, 2021년 안전한국훈련 실시

- 10월1일부터 2개월간 전국에서 기관별로 훈련 분산 실시 -

---
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‘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 -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재난대비역량을 점검해 보는 훈련으로, 2005년 처음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.
  - 올해는 23개 중앙부처, 17개 시도, 228개 시군구와 54개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이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.
-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별 훈련 시기를 분산하고, 토론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되,
  - 과거와 달리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나 미비점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내용을 필수 이행사항에 추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에는 지역확산 차단에 전념하면서 훈련 대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, 올해는 재난대응역량의 유지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
- 다만,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훈련이 아닌 토론 방식을 통해서도 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.

□ 훈련의 중점사항을 살펴보면,

○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훈련 시기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한다.

- 훈련 시기는 기존에 3~5일 정도 기간을 정하여 모든 기관이 일제히 실시하던 것을 올해에는 10~11월(2개월)간 기관별 현안 및 일정 등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했다.

○ 사전에 정해진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장훈련이 곤란한 만큼 토론훈련으로 실시하되, 현장훈련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한다.

- 토론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과 기관들의 대응체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집중 발굴하고,
- 평이한 상황 전개와 완벽한 대응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, 다양한 돌발 및 장애 상황과 갈등요인을 설정하고,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.

※ (예시) <최초상황> ○○공단 ○○공장에서 화재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, 3층 요구조자 3명, 풍향 북서풍(임야방면) 및 풍속 2㎧ ⇒ <상황변화> 화재 진압 중 폭발성 물질 확인, 옥상 요구조자 2명 추가 확인, 풍향 서풍(주택밀집지역) 및 풍속 4㎧로 변경(주민대피 필요),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사망자 발생 등

○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유형(3개)\*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 시범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.

\* ① 원전 방사능 유출(원안위), ② 건물 붕괴(국토부), ③ 사업장 사고(고용부)

- 다만,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실제 실시 여부는 10월 초에 결정할 예정이다.

-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현장훈련 참관이나 대피훈련 동참 등 직접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
  - 국민들이 집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유사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, 탈출에 필요한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.
  -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.
  
-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기를 분산하고, 토론훈련 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지만, 훈련 품질이나 대응역량 향상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하면서,
  - “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재난대응 기관들이 이전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고,
  - 국민들께서도 각자 일상 속 위험요인을 확인·회피하고,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높여 나간다면,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**참고**

## 과거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례

### 화재 대피 및 대응 훈련



### 터널 화재 대응 훈련



### 여객선 사고 대응 훈련



### 열차 사고 대응 훈련



##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훈련



## 지진 대피 훈련



## 응급구조 훈련



## 현장지휘소

